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도시거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김태임¹ · 권윤정² · 김미종³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간호학과¹, 충청대학교 간호학과², 한남대학교 간호학과³

Phenomenological Study on Mothering Experiences of the Married Immigrant Women in Urban Areas

Kim, Tae Im¹ · Kwon, Yun Jung² · Kim, Mi Jong³

¹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University, Daejeon

²Department of Nursing, Chung Cheong University, Cheongwon

³Department of Nursing,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plore the lived experience of pregnancy, childbirth, postpartum and early child rearing in married immigrant women in urban area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to April, 2011 through in-depth interviews. Nine immigrant women were selected in a metropolitan area through the purposive and snowball sampling method. After obtaining IRB permission and informed consent from the participants, all interviews were recorded with MP3 recorder and transcribed for analysis. Using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ing were analyzed following Colaizzi style. **Results:** Data analysis revealed 4 categories and 10 themes related to pregnancy, childbirth, postpartum and early child rearing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urban areas. These four categories were 'A clumsy foreigner's life with nostalgia', 'Crisis in the crisis', 'Unprepared for motherhood', and 'Living together with new family without regrets'. It was a common finding that they were not ready to be mothers because of the very short time for adjustment in Korea. Compared to rural, immigrant women urban women had various in social support systems.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adequate education is needed for immigrant women regarding motherhood, and that this education should be culturally appropriate for these women.

Key Words: Immigrants, Qualitative research, Pregnancy, Postpartum period, Child rearing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다문화 가정의 확산은 이제 더 이상 낮설지 않은 모습이 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우리나라 전체 혼인에 대한 국제 결혼비율이 5.0%이었고, 2005년 13.5%, 2010년에는 10.8%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결혼하는 10쌍 중 한 쌍은 외국인과 혼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SIS, 2009, 2011).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의 전형적인 형태는 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등 동남아 출신의 여성들과 한국 남성의 결혼으로,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

주요어: 결혼이주여성, 질적 연구, 임신, 산욕기, 양육

Corresponding author: Kim, Mi Jong

Department of Nursing, Hannam University, 1646 Yuseong-daero, Yuseong-gu, Daejeon 305-811, Korea.
Tel: +82-42-629-8895, Fax: +82-42-629-8883, E-mail: heetak01@naver.com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0-0011479).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EST) (No. 2010-0011479).

투고일: 2012년 1월 2일 / 수정일: 2012년 3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2년 4월 6일

족들은 이제 간호의 중요한 대상자로 부각되고 있다(Kim, H. S., 2008; KOSIS, 2009, 2011).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주로 가입기에 있고, 이주동기가 ‘결혼’이며, 여성건강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건강과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임신, 출산, 산육과 양육과정, 즉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건강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들의 83.7%가 결혼 후 1년 이내에 첫 번째 임신을 하게 되고 첫 임신까지 평균 6.6개월이 걸리지만, 이들 중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은 5.5% 수준에 불과하다(Kim, Hwang, Jang, Yoon, & Kang, 2008).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상당수가 결혼 생활 및 언어, 문화에 대한 충분한 적응 없이 ‘어머니가 되어가는 경험’에 노출됨을 의미하므로 모성 및 아기에게 미치는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많은 우려를 갖게 한다.

임신, 출산 및 양육의 경험은 자신의 모국에서 경험하는 어머니에게도 많은 지식과 기술과 지원이 요구되는 생의 발달적 위기이다(O'Hanlon, 2005; Yang & Kim, 2003). 그러므로 타국으로 이주하여 결혼하고 적응의 시간을 거의 가지지 못한 채 엄마가 되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느끼고 체험하는가를 탐색하는 것은 여성 건강간호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임신, 출산, 산육 및 초기 양육에 관한 연구는 보건 및 간호학 분야에서의 최근 몇 편(Chung, 2011; Jang, Hwang, Yoon, & Park, 2010; Jeong et al., 2009; Lim, 2011)에 불과하다. 특히 처음 어머니가 되고 신생아를 양육해야 하는 초기 양육의 신체적, 심리적 및 역할적 변화에 급박하게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에는 주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로 아동 양육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다루는 양적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Bae et al., 2010; Choi, Woo, Jung, Park, & Yi, 2009; Kim, 2009; Seo, Kim, & Kim, 2008).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여성의 경우 그들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구조화된 설문지만으로는 그들의 실상을 도출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실증주의적 철학적 배경을 가진 양적연구와는 달리 질적 연구, 특히, 현상학적 연구는 어떤 선입견이나 이론적 개념들의 방해받지 않고 연구자의 직관적인 통찰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기술을 분석하여 인간적으로 경험된 현상의 의미를 밝히게 되므로(Shin et al., 2004), 인간적으로 경험된 현상의 의미, 즉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는데 더욱 적합하다.

한편 초기에 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형태의 농촌 저소득

층으로의 결혼이주가 주류를 이루었던 것에서 최근에는 도시 지역의 거주비율이 60%를 넘어서고(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09)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결혼이주여성들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왔다(Kim, H. J., 2008; Kim, Kim, & Kwon, 2008; Moon, Kim, & Sim, 2009). 다문화 가족 간에도 도시가 농촌에 비해 경제적으로 소득이 높으며 문화, 사회적 환경의 차이가 있음이 보고됨에 따라(Community Chest of Korea, 2009; Nam & Ahn, 2011),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의 건강과 삶의 경험도 간과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타국에서 어머니가 되는 경험은 어떠한가?’, ‘이들은 어머니가 되는 경험에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하는가?’,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머니가 되는 경험을 통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연구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모성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앞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도시거주 다문화 가정의 요구에 맞도록 향후 제공되는 지원 사업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이 체험하는 모성 경험을 현상학적 접근으로 밝히고 서술하여 그 의미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족 어머니의 경험을 이해하며 새로운 간호의 대상자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이 체험하는 임신, 출산 및 초기 자녀양육의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의 선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출산경험 등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찾기 위하여 의도표집과 눈덩이식 표집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첫째,

결혼을 통하여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 둘째,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셋째, 최근 5년 이내에 출산한 적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한 사람들이었다.

연구에 앞서 기관의 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았으며(IRB-11-37), 기관장의 허락을 얻어 자료수집을 시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2월 15일에서 4월 12일까지였으며, A시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센터에 교양 및 한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방문한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기관에 근무하는 실무교육자에게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는 3명의 참여자를 추천 받았으며, 이들에게서 연구에 참여할 것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후에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후에 이들로부터 다른 대상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 모두 한글학교 중급과 상급반에 해당하였으며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였고 면담 시에는 연구자는 평소보다 또박또박 천천히 말하였다. 면담은 수업이 끝나고 소회의실에서 대상자와 연구자들만이 있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미리 녹음할 것임을 알렸으며 녹음내용은 본 연구에만 사용되고 기초자료로 정리된 후 폐기될 것과 익명으로 진행될 것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면담 후 대상자에게 답례품이 제공되었다. 연구중간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였으나 참여를 중단한 탈락자는 없었다. 개별면담은 1회에 20~60분간 녹음을 하였으며 더 필요한 경우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재면접이 이루어져, 1인당 총 면담횟수는 1~3회, 총 면담시간은 60~90분가량이었다. 현상에 대한 새로운 범주가 도출되지 않는 자료의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때 면담을 종료하였으며 최종 연구 참여자는 9명이었다.

3. 연구자 준비

질적 연구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연구자의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 워크숍에 참석한 적이 있으며, 대학원에서 질적 연구 과목을 수강하였다. 또한 연구자 중 한 사람은 간호학 저널에 두 편의 질적 연구를 발표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의도적으로 사전에 문헌고찰을 하지 않아 연구 대상자의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자 하였고, 개방적이고 비구조적인 질문과 의사소통으로 면담한 후에 대상자가 기술한 내용을 여러 차례 함께 읽고 의미를 이끌어내었다. 분석과정에 앞서 현상학적 환원의 태도인 '괄호치기'를 사용함으로써 연구자들의 편견과 경험이 대상자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4.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자들은 Lincoln과 Guba (1985)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평가기준에 부합하도록 연구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상을 생생하고 충실하게 해석하고자 면담 즉시 자료를 듣고 여러 번 읽어 본질적 의미를 추출하여 신뢰성(credibility)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가 적용성(applicability)을 가질 수 있도록 본 연구 참여자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닌지를 논의하였다. 또한 일관성(consistency)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대상자, 심층 면담의 방법, 과정, 자료수집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자 하여 추후 반복연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성(neutrality)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들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문헌고찰을 하지 않았으며 의미와 본질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편견을 배제하고 판단중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구가 진행되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자간 토론 중에도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보도록 강조하면서 토론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는 현상학적 자료 분석방법 중 Colaizzi (1978)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자들은 함께 심층면담한 녹음파일을 듣고 필사본을 여러 번 읽었다. 연구자의 판단을 배제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경험을 공감하고자 현상학적 반성을 하면서 관련된 자료로부터 의미있는 문장과 구를 선택하였다. 추출된 문장과 구로부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제를 만들어 의미를 구성한 후 더 큰 수준으로 범주화하였다.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연구 참여자들이 표현한 내용을 명확하게 묘사하기 위해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며 주제를 분류한 후 질적 연구에 경험이 많은 간호학과 교수 2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다음으로 분석된 자료를 주제의 흐름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경험에 관한 현상을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설명하였다. 분석결과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했던 결혼이주여성들 중 3인을 만나 경험의 본질적인 구조인 범주와 주제들이 자신이 느꼈던 것과 같은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는 총 9명으로 출신국은 베트남 4명, 중국 2명, 필리핀 3명이었고 한국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5.7년, 결혼 후

임신하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6.3개월이었다. 핵가족이 6가정,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3가정이었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접 결과 100개 이상의 의미단위들이 추출되었고, 보다 상위 개념인 10개 주제로 도출하였으며, 주제를 묶어 최종적으로 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Table 1).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의 주요 범주는 ‘그리움을 담고 사는 낯설고 서툰 이방인’, ‘위기 속의 또 위기’, ‘준비되지 못함’과 ‘내 가족과 함께 하는 후회 없는 삶’이었으며 범주별 주제 및 의미 있는 진술은 다음과 같다.

범주1: 그리움을 담고 사는 낯설고 서툰 이방인

주제 1. 서툰 말로 낯선 나라에서 산다는 것

언어소통의 어려움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초기에 겪는 가장 힘든 경험이며 언어에 대한 적응은 한국 생활의 안정을 결정짓는 큰 요소였다. 이들은 한국말이 서투름으로 인해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툰 한국어로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것은 낯선 나라에서 자신을 돌보기도 벅찬 이들에게 큰 부담이었고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으나 아이를 위해서 용기를 내며 서툰 언어로 한국사회를 부딪혀 나서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용기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설명을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도와주는 사람 없이 본인 또는 아기가 아플 때 의료기관 이용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은 불편함과 답답함을 넘어서 두려움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아기 낳고 한국말도 몰랐잖아요. 근데 남편이 직장 혼자 갔잖아요. 한국말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생활하기 좀 어렵죠. 한국말도 몰라서 답답하고 맨날 울고 있고 그랬어요. (참여자 A) 몇 개월에 어떻게 먹여라 그런 건 잘 몰라도 그림 보면서... 중략... 물어봐도 한국말 얘기 안 통하니 되게 답답했어요. (참여자 D)

간호사 세 명있고 양팔잡고 다리도 잡고 밑(회음 또는 질 부분)을 계속 꿰뚫어요. 이야기를 하고 싶는데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오면 말하고 싶는데 꼬맸다고 얘기를 할 줄도 모르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말 몰라서 너무 무섭고 막 울었어요. (참여자 H)

아침 약만 먹고 나서 아침 식사하지 말고 점심때쯤 오라고 했는데 약을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고 식사도 하고 가서 검사도 못해 속상했어요. (참여자 B)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에 갔는데 문진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몰라서 무조건 다 체크했어요. 나중에 간호사가 아기 주사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보고는 괜찮다고 그래서 주사맞고... (제가) 말을 모르니까 잘못 체크하는 거예요. (참여자 C)

보건소 갈 때... 중략... 의사 선생님 만나면 “저 잘 몰라요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근데 자세히 가르쳐줘도 제가 다 못 알아들이니까 무조건 네네네 했어요(참여자 D)

주제 2. 입덧으로 피어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임신을 하고 입덧을 겪게 되면서 고국의 음식을 갈망하였고 음식에 대한 그리움은 곧 고국과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어졌다. 비싸고 구하기 어려워 먹지도 못하고 그리움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 남편이 고국의 음식을 사주고 위로하면서 고국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면서 이 시기를 참아 넘기고 있었다.

임신했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저 그때 입덧 때문에 한국음식 못 먹었어요. 자꾸 베트남 음식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힘들었어요. 되게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고... 과일 특히 망고도 많이 먹고 싶었고, 두리안 있잖아요. 그리고 파파야... (참여자 H)

한국음식 냄새 맡으면 힘들었어요. (임신)6~7개월까지 고향음식 먹고 싶으면 남편이 중국식당에서 데리고 가서 사주었어요... (중략)... 고향에 간 것처럼 좋죠. (참여자 C)

입덧 심할 때 그냥 엄마가 해주는 음식? 목 이런 닭조림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먹고 싶은데 없으니까. 엄마가 보고 싶으면 그땐 전화 했어요(참여자 A)

연구 참여자 중 비록 한 사례뿐이었지만 임신 중 고국을 방문하게 된 경우도 있었는데, 입덧이 심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해소되지 못해 임신 중 심한 우울을 호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던 한 참여자는 다행히 남편의 도움으로 임신 중 고국을 방문할 수 있었고 이때의 한 달 동안의 고국방문은 입덧과 고국의 그리움을 씻어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남편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신뢰가질 수 있었다.

그냥 매일 울었어요. 근데 좀 배부르면 남편이(친정에) 보내줬어요. 6개월 됐나? 한 달 놀다와 그러는 거예요. 친정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서 되게 많이 먹었어요. 머든지 다 먹고 싶어 쌀국수 있잖아요 두 그릇, 세 그릇 한

Table 1. Experience of Motherhood among the Married Immigrant Women in Urban area

범주	주제	의미단위
그리움을 담고 사는 낯설고 서툰 이방인	서툰 말로 낯선 나라에서 산다는 것	한국말도 모르는데 남편도 직장에 가버리고 혼자 남아, 한국말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 생활하기 어려움, 한국 말 몰라서 답답해서 맨날 울고, 말이 안 통해 억울함, 이야기를 하고 싶는데 말도 안 통함, 남편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얘기를 할 줄도 모르고 못 알아들음, 한국말 몰라서 무섭고 막 울었다.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병원에서 검사를 못하고...간단한 서류작성 몰라서 잘못 체크함, 한국말 잘 몰라 힘든 점 많음, 못 알아들을 때는 무조건 네네네., 아기를 위해 한국어 책을 사다 이유식 만들려는 시도, 가족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몸짓언어를 사용함, 의사소통 안 됨으로 인한 억울함, 속상함, 무서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신체 처치받음,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함, 언어소통이 어려운 상태에서 아픈 아이를 돌봐야 하는 어려움, 서툰 말로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가기, 막막함, 무조건 네라고 함, 답답함, 혼자 남겨짐, 힘들, 어려움, 매일 울음, 모름, 그림만 보고 이해하기, 언어를 익히고 임신하지 못함에 대한 후회, 말 안통함, 몸으로 의사소통하기, 누군가와 동행해야만 하는 생활
	입덧으로 피어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입덧 심해서 고국음식 먹고 싶음, 구하기 어려운 고국음식, 원래모습이 아닌 냉동으로 파는 고국음식, 집에서 잘 해먹던 음식 생각남, 집 생각이 많이 남. 입덧 때문에 자주 베트남 음식먹고 싶을 때 못 먹어서 힘들, 한국에서 고국음식 구하기가 비싸고 어려움, 매일 울었음. 임신 6개월에 친정에가서 고국음식 많이 먹고 정말 좋았다, 고국의 음식이 무엇이든 다 먹고 싶음, 쌀국수 두그릇 세그릇 한 번에 먹었음, 자주 먹고 싶은 고국음식, 남편이 고국음식을 사줌, 임신 중 고국을 방문하게 되어 행복한 시간 보냄, 고향음식 먹고 싶으면 남편이 중국 식당에서 데리고 가서 사주었음, 고향에 간 것처럼 좋음, 엄마가 해주는 음식먹고 싶음, 되게 먹고 싶은데, 엄마가 보고 싶으면, 입덧을 하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 남편의 위로로 달랠, 부모님께 자주 전화함
	다가가고 싶은, 그러나 다가가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	한국사람 친구되면 좋겠음, 한국 사람과 같이 얘기도 하고, 한국 사람한테 얘기키우는 법도 배우고 싶음, 한국 사람들이 우리보면 좀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함, 한국 사람과 친구하고 싶음, 한국사람들 좀 까다로운 것 같은 느낌, 고향 시골집과 다른 아파트 문화가 더 어렵게 느껴짐, 아파트 옆집 사람도 얼굴 한 번도 못 봤음, 만약 옆집사람을 만난다 해도 말 안 통하니 걱정됨, 한국사람과 친구하고 싶음, 한국 사람에 주목됨, 한국 사람 눈치를 봄, 까다로운 한국 사람,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 이웃을 모르고 사는 한국생활이 고국생활과 비교됨
위기 속에 또 위기	이주와 임신의 힘겨운 이중 스트레스	임신중 짜증남, 뱃속의 아이를 치고 싶은 느낌, 태교를 모름, 태아에 대해 그릇된 지식, 임신중 매일 울음, 갑작스런 변화, 옆에 아무도 없음, 임신동안 울고 지낸 것에 대한 후회감, 오자마자 임신, 너무 빨리 임신된 것에 대한 후회스러움, 낙태를 생각함, 아기돌보기 걱정, 낯선 음식과 환경에서 임신하기, 경험없음, 입에 안 맞는 음식, 익숙치 않은 타국에서 보내는 임신의 시간, 힘들, 준비되지 못함, 갑작스런 임신, 후회감
	내 문화를 버리고 체념하고 순종하는 임신과 산육의 시간	다 먹지도 못하는 미역국, 시어머니 몰래 미역국 버리기,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미역국 먹기, 할 수 없음, 체념, 인내, 남편의 격려, 참고 먹음, 지겨운 미역국, 자국의 임신음식 문화가 무시당함, 매운 음식에 대한 거부감, 임신 중 한국음식 먹고 포함, 비위에 안 맞는 한국 음식, 미역국 안 좋아해도 먹음, 한국의 산후 문화를 따르려고 애씀
준비되지 못한 모성	모르면서 엄마되는 막막함	아기를 목욕 물에 빠뜨림, 당혹감, 무서움, 떨림, 속상함, 막 울음, 도와주는 사람없음, 아기에 대한 조심스러움, 나도 모르고 남편도 모름, 육아 정보를 찾아 인터넷을 뒤짐, 아기 만질 때 겁나고 무서움, 쪼그만 아기를 다치게 할까봐 두렵고 겁이 남, 무섭고 겁나는 홀로 아기 돌보기, 힘들, 혼자서 아기키움, 미리 알지 못한 아쉬움, 막막함, 유방간호 모름, 어떻게 할지 모름, 아무도 모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산후 유방통증, 산전교육 없음에 대한 아쉬움, 출산전후 관리방법 교육에 대한 바람, 자국어로 된 교육자료에 대한 아쉬움, 자국어로 교육 받고 싶음, 산전교육 받지 못함
	도움의 손길에 따라 달라지는 산육과 양육의 시간	아기 낳고 집에 가지마자 청소와 빨래함, 산후조리와 아기돌보기를 혼자다 함, 도와주지 않는 시어머니, 아기 돌보기를 혼자다 함, 힘들고 몸이 아픔, 힘들, 남편의 낮동안의 부재,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음, 시어머니와 육아법과 갈등으로 아기돌보기를 혼자다 함, 산후도우미에게 많이 배움, 친정가족이 내한하여 산바라지함, 남편의 도움이 부족으로 서운함, 가까운 친지의 도움을 받음, 도움받아 홀로 섬, 남편의 도움, 교회 선생님의 도움, 병원에서 가르쳐줌,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함,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움을 받지 못함, 먼저 임신한 고국 친구들의 도움을 받음,모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봄, 보건소의 책이 도움이 됨, 모국의 웹사이트 정보와 한국 상황의 거리감, 남편의 도움을 받아 한국말 책을 봄, 보건소의 교육과 지원을 전혀 몰랐음, 받을 수 있는 사회와 국가의 교육과 지원을 몰라서 놓침
새 가족과 더불어 후회없는 삶	한국사회를 향한 디딤돌 : 남편	한국 말 책 이유식을 보고 어려우면 남편이 설명해 줌, 남편 마음 착해요, 예방접종을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남편이 같이 가고 있어줌, 남편 일 나갔다가 저녁 때 돌아오면 아기목욕 해줘요, 남편의 배려로 몸과 마음이 편해짐, 바쁜 남편의 대한 서운함, 고마움, 원망, 늘 함께 동행해주는 남편, 남편이 다 사다줬어요, 남편의 없을 때 느끼는 무력감, 착한 남편으로 인해 행복함, 남편의 장애가 문제되지 않음, 남편 바빠서 못가면 혼자 잘 못감, 혼자 있는 자신을 남편이 걱정함, 남편의 관심이 점점 소원해짐, 집안일 도와주지 않아 이해가지 않음
	나를 타국에서 살게 하는 의미 : 아이	바쁘게 살며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어 아이가 혼자 노는 고국의 모습과 비교됨,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한 시간이 없는 고국의 생활이 한국과 비교됨. 애를 예쁘게 돌보는 한국 사람들, 아기하고 좀 더 많이 놀아주고, 아기 키우는 여건이 좋음, 한국생활 만족의 이유, 아기가 상도 받고, 상도 받는 큰 아이, 아기가 자랑스러움, 외국 엄마라서 한글 가르치기 어려움을 걱정함, 아기를 위하여 모국어 사용을 자제함, 아기와 한국말로 대화함, 아기가 미래에 차별받을까봐 걱정함, 아기를 위해 모국어로 말하지 않고 한국말을 하려고 노력함, 아이때문에 행복함
	행복을 찾아서 건너온 후회하지 않을 먼 길	한국에 온 것 후회 안함, 내 인생 찾으려고 여기 온 이유, 행복하게 살고 싶어 찾아온 나라 한국, 오고 싶었던 나라, 아이에게 좋은 것 보여주고 싶은 한국, 만족감, 시집을 잘 갔구나 하는 생각, 한국말을 습득할수록 생활이 즐거움을 느낌, 고국에 비해 여유로운 생활, 애기에게 더 잘 해줄 수 있는 여유로운 한국이 좋음, 한국에 온 거는 후회는 안함

번에 먹어요. 아 그때 갔다 와서 좋아졌어요. 완전 좋았어요. 남편한테 고맙죠. (참여자 F)

주제 3. 다가가고 싶은, 그러나 다가가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

한국 사회에 동화되고 싶지만 이방인으로서 한국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어렵고 스스로 주눅 들어 지내며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특히 이웃과 상호작용이 부족한 한국의 아파트 문화가 고국의 생활과 비교되어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사람 친구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같이 애기도 하고 애기 키우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한국사람들 우리 보면 좀 어떻게 머라고 하지? 싫다고 할까? 우리 친구하고 싶은데... 한국사람들 좀 까다로워요. (참여자 F)

고향이 있을 때 시골 살았어요. 그러면 시골 문 항상 열어요. 또 옆집 사람도 애기도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여기 아파트 사니까 옆집 사람도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만약 봐도 말 안 통하니까 힘들었어요.(참여자 A)

범주 2: 위기 속에 또 위기

주제 4. 이주와 임신으로 힘겨운 이중 스트레스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족들을 모두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상황적 위기에 결혼과 임신이라는 발달적 위기가 가중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 오자마자 임신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너무 급하게 계획 없이 임신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뱃속의 아기를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극한의 정서를 경험하거나 당황스러움과 후회감으로 낙태를 생각하기도 하였다.

저는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어 좀 익히고 나면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근데 오자마자 임신이 된 거예요. (아이가) 너무 빨리 생겨서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잠도 안 오고 벌써 임신해서 후회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때 지울까 말까 남편도 지우자고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계속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독한 거라고... (참여자 H)

처음 5주 때 매일매일 울었어요. 갑자기 집 떠났잖아요. 여기 오면 나 옆에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베트남 음식도 먹고 싶고, 엄마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임신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참여자 F)

임신했을 때 맨날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고 기분 나쁜 거예요. 이상하게 그냥 맨날 어지럽잖아요. 눕기만 하

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보니 짜증나고, 애기 그냥 막 치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참여자 H)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머니로서의 입장을 회복하면서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점차 적응하게 되며 이때 '태교'의 개념을 주로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와 임신의 가중된 위기감을 점차 가족의 관심과 도움에 따라, 아이를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아기에게 태담을 시도하는 등의 어머니다운 적응행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신했을 때(아기에게) 계속 짜증부리면 나중에 애기도 똑같이 된다고 신랑이 애기했어요...후략... (참여자 H)

애기야 엄마그냥 머 착해라 애기야 머하고 있지?... 잘 놀아... 예쁜 말 하고 싶잖아요. 그냥 웬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유치하고 어색해서... (참여자 G)

그땐 내가 울고만 있으면 애기가 어떻게 하는 생각은 전혀 안했어요. 그래서 딸래미 좀 그래요 성격이. (참여자 A)

임신했을 때 애기에게 음악하고 듣는 거 좋아하고 책도 읽어주고 한국말도하고 베트남말도 했어요. (참여자 D)

주제 5. 내 문화를 버리고 체념하며 순종하는 임신과 산육의 시간

산후 한동안 미역국을 먹는 우리나라 산후조리 풍속은 이들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쉽지 않은 문화적 어려움으로 인식되었다. 이들은 매 끼니 이어지는 미역국에 힘들어 하고 지겨웠다고 말하였으나 남편의 격려로 참고 먹는 등 한국의 문화적 풍습을 따르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기낳고) 미역국을 우리 시어머니가 이만큼 쫄통에다가 끓여놓고 가세요. 이거다 먹으래요. 그거 힘들죠. 나중에 남편이 같이 먹어 주다가 못 먹으면 어머니 오시기 전에 화장실에 버려요. 그럼 또 와서 또 해줘요. (참여자 I)

그래서 나도 그냥 이휴 한 달만 미역국 참고 조금 있으면 다른 거 먹고... 중략... (참여자 G)

아침, 점심, 저녁 다 미역국 먹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애기아빠가 애기를 했잖아요. 계속 아침, 점심, 저녁 꼭 먹으라고 참고 먹으라고. 한 달 동안 미역국 너무 지겨웠어요. (참여자 D)

아기 낳고 한국에서는 형님이 저기 불을 많이 때야한

다고 얘기 안 아프고 건강하고 엄마도 건강하고, 나중에 나이 많이 먹고, 안 아프게 그렇게 해요. 안 좋아해도 해야지요. (참여자 E)

임신 중 문화적 임신 중 우리나라의 태교와 맞지 않는 자국의 태교음식을 먹으려했던 한 참여자는 자국의 임신부 권장 음식을 금하는 한국의 시댁가족들의 반대의견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한국 가족들의 의견에 따르면서도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 한국 사람들에게 원망스러운 느낌을 표현하였다.

(베트남에서는) 임신 했을 때 오리알을 먹어요. 오리알에서 새끼 칠려고 하는 그 병아리같이 그런 거를 먹어야 애기 머리 카락 많이 나거든요. 〇〇역에 베트남 마트에서 사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남편 고모 왔잖아요. 봤잖아요 머냐고. 먹지마 이거 한국사람 금지하는 거라고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못 먹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건데... (참여자 D)

범주 3: 준비되지 못한 모성

주제 6. 모르면서 엄마 되는 막막함

결혼이주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산육이라는 처음 겪는 신체의 변화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자신감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특히 처음으로 신생아를 돌보는 경험은 무섭고 겁나고 막막한 경험이며, 때로는 아기의 안전이 우려될 정도였다.

아기 목욕시키잖아요. 아기가 너무 작아서 가벼워서... 손에서 내려서 애기 머리가 물에 쏙 빠지잖아요. 얼른 꺼냈는데 막 이렇게... 그래서 무서워서 손 떨리고 막 울었어요. 막 너무 속상해서, 애기 안고 옷 다 적셔버려서 그리고 목욕시키는 거 되게 무서워요. 힘들었어요. 한 손잡고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참여자 H)

집에 혼자서 있으면 많이 힘들었죠. 겁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애기 토하잖아요. 겁나고... (참여자 E)

모유 안 나와 가지고 부어가지고 만땅이에요. 일주일 댔는데 풀 수 없고 남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도 몰라서... 그렇게 아픈 게 있는지 몰랐고 생각도 안 했어요. (참여자 G)

이러한 막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 업

마가 된 결혼이주여성들은 정보를 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보의 출처는 본인 스스로, 가족, 아기를 먼저 낳아 키우고 있는 자국의 친구, 인터넷, 자신이 도움을 받고 있는 한국인 등이었다. 정확성이 보장되지 못한 이러한 양육정보는 잘못된 결론을 유도하여 모유수유를 임의로 중단하게 만들거나 아기와 상호작용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젖줄 관리하는 거 그런데 나도 모르고 신랑도 잘 모르잖아요. 신랑이 컴퓨터에서 찾아서 공부했어요. (참여자 F)

모유는 십오일만 먹었어요. 애기는 십오일 이후에 그냥 그만 먹고 분유 먹으면 좋아. 내 생각에. 왜냐면 계속 모유 먹는 거 영양 없잖아요. 아기가 살도 안찌고 더 영양 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분유 먹었어요. (참여자 E)

(아기가) 일주일동안 젖 안 먹고 계속 울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남편한테 얘기 했어요. 그러면 모유 그만 먹고 분유먹여... (분유먹이면서) 아기가 살이 많이 썩어요. (참여자 A)

입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몰라서 제가(아기 입에) 손가락 넣어 막 닦았어요. 아기가 다 막 토해요. 나도 몸 아픈데 애기는 토하고 울어서 속상하잖아요. 교회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참여자 I)

필리핀 친구가(아기가 울면) 안아주지 말고 키워야 된다고 했어요. 계속 안아주면 엄마가 나중에 몸 나빠져서 건강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참여자 B)

주제 7. 도움의 손길에 따라 달라지는 산육과 양육의 시간

결혼이주여성들은 임신, 출산, 산육의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한국가족 또는 다른 지지체계가 있는 경우 훨씬 수월하게 산육기와 초기 어머니시기를 잘 지낼 수 있지만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서 겪어야 하는 경우에 본인의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양육에 참여함으로써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본인 혼자만이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경우는 아기 및 본인의 안전, 영양 및 다양한 건강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나타났다.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집에 가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애기 눕히고 막 다 청소 했어요. 제가 혼자서. 도와주는 사람없죠. 혼자 애기 목욕시키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빨래하고 천기저귀 쓰는데 힘껏 다 빨았어요. (참여자 H)

남편도 늦게 오고 아무 사람 없어요. 그리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요리도 캔으로 된 것 먹고 애기가 밤에 안 자잖아요. 피곤해서 그냥 그대로 자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하루에 밥 딱 한 끼만 먹었어요. (참여자 I)

애기 안고 그럴 때 힘들고 하튼 많이 힘들었잖아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후 힘들고 그냥 조금 안고 아유 허리 아프고 등도 아프잖아요. (참여자 A)

이와는 다르게 2~3개월간 산후도우미나 시댁의 도움을 받거나, 수개월간 산바라지와 육아를 위해 친정가족들이 한국에 와서 도와준 경우 이와는 다른 편안하고 안정적인 산육기와 초기 양육기를 보낼 수 있었다.

집에 산후도우미 왔어요. 3주정도. 목욕도 많이 배우고 애기경험 많이 받았어요. 밥도 해주고 반찬도...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살았어요. 그다음은 힘들었지만 혼자 할 수 있었어요. (참여자 D)

퇴원하고 2주 동안 산후도우미 왔고 베트남에서 친정엄마 오셔서 10달 동안 아기 봐주고 갔어요. (참여자 F)

아기 낳고서 중국에서 친정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셨어요. 중국에서는 남자가 요리 더 잘하거든요 친정아버지가 밥하고 친정엄마가 아기 돌봐주다가 3개월 있다가 갔어요. (참여자 G)

범주 4. 내 가족과 더불어 후회없는 삶

주제 8. 한국사회를 향한 디딤돌: 남편

결혼이주여성에 있어서 남편의 존재는 ‘남편’ 의미 이상의 존재감을 갖는다고 파악이 되었다. 이들에게 남편은 한국 생활이 유일한 보호자이며, 든든한 지원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남편에 대한 의지는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 이들의 매사에 동행하여 주어 보호자가 되어 주었고, 아내를 걱정하며 배려하는 행동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남편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게 하였다.

이유식은 한국말 책 보고 조금 어려웠지만... 어려우면 남편이 설명해 주었어요. 남편 마음 착해요. (참여자 E)

예방접종을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수첩에 시간(날짜)마다 남편이 있어 줬어요. 같이 가고. (참여자 C)

아기 목욕시킬 때 어떻게 하는 지도 몰라요 남편 일 나갔다가 저녁 때 돌아오면 해줘요. (참여자 A)

임신 중에는 검사 같이 갔어요. 남편 바빠서 못가면 그때 혼자 잘 못가서 못했어요. (참여자 B)

(남편이) 일하다가 몇 번 전화하고... 임신하고 혼자 집

에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었을 거예요. (참여자 G)

임신했을 때 집에 가고 싶어. 가족보고 싶었을 때는 남편이 임신 때문에 가면 위험해(라고하면서) 음식도 사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부모님 보고 싶으면 자주 전화하라고 그렇게... (참여자 D)

입덧할 때 물만 먹었는데... 살도 빠지고 그때 베트남음식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남편이 다 사다줬어요. (참여자 H)

그러나 때로는 남편의 관심이 점점 소원해지거나 가부장적인 행동을 보이며 도와주지 않을 때 대상자들은 힘들어 하였고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전통적인 한국의 가부장적 남편행동에 대해 중국과 베트남 출신 여성들은 모국과 비교하며 서운함을 토로하였다.

남편이 처음에는 좀 울지 마라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질리잖아요. 알아서 하겠지 멀 이리면서... (참여자 H)

집에 있어도... 한국남자들 안 도와줘서 힘들어요. 우리나라(베트남)는 밥할 때 남편도 애기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남자들 수저젓가락 물컵 이런 것도 안하고, 여자가 다하고 남편은 티비보다 먹고 가고... (참여자 F)

중국남자들은 식사준비도 요리도 다해요. 처음에 결혼하고 그런 점(가사일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이해가 안 돼서. (참여자 H)

주제 9. 나를 타국에서 살게 하는 의미: 아이

결혼이민자들은 생활고에 빠듯한 바쁜 모국에서라면 생각도 못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아이를 예뻐하면서 키울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엄마로서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아이가 생김에 따라 이제 타국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가족으로서 존재함을 인지해가고 있었다.

베트남에서는 애 낳으면 바쁘니까. 혼자 놀고 혼자 하는 거예요. 사랑이 되게 부족하지요. 여기 엄마들 애한테 예쁘게 해주잖아요 아기하고 좀 더 많이 놀아주고 그럴 시간이 있어서 한국에 온 게 좋아요. (참여자 F)

애기 많이 사랑해요. 애기 생각 많이 했어요. 큰 애 7살인데 미술학원에 다녔는데 그림 잘 그려서 큰 상도 받고, 머리 똑똑해요 엄마 닮아서 똑똑해요. 지금 그래서 너무 좋아요. (참여자 I)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한국에서의 존재

논 의

감을 더해주는 자녀에 대해 잘 키우고자 하는 열망을 보인다. 한편으로는 이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미래에 걱정도 커 보인다.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은 행여 자녀들이 외국인 자녀라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서툰 한국어로 차별받을까, 무시당하고 폄하당하여 상처 받지 않을까 스스로 과장되게 생각하여 위축되기도 한다고 고백하였다. 결국 아이의 미래에 대해 많은 걱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들은 모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아기와 주로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 엄마라서 한글 애한테 가르칠 때 할 수 없잖아요. 혹시나 나중에 학교 가면 우리 애 친구 안 놀아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차별... 니 엄마 외국인이다. 이렇까봐 차별 이런 거 안 하면 좋겠는데. (참여자 F)

한국 엄마들 못 놀게 해요. 재 놀지 마라. 개 엄마 외국인이다. 그런 느낌. 그냥 무시하는 게 느껴져요 제가 느끼는 거야. 혼자서. (참여자 D)

애한테 한국말을 하고 가끔만 베트남 말을 조금씩 써요. 한국말을 더 노력을 해요. 좀 익숙해야 되니까. (참여자 A)

제가 말이 안 돌아가잖아요. 마트에 가서 한국어로 된 음악이나 동화 CD 사다가 그거 계속 들어줬어요. 애기 잘 때도 틀어주고 그냥 누웠을 때도 틀어줘요. 그러면은 아기가 정확한 한국말을 배우잖아요. (참여자 H)

주제 10. 행복을 찾아서 건너온 후회하지 않을 먼 길

이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지만, 남편과 아이가 있고 고국에 비해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에 행복해하며 만족해하였다. 멀리 타국으로 자신의 인생을 찾아 적극적인 선택을 한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결혼 만족을 결정짓는 것은 남편과 자녀들의 존재였다.

한국에 온 거는 후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저 인생 찾고려고 여기 온 이유가 제가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우리 아이한테 좋은 풍경 보여주고 싶고, 그 이유 한국 온 거예요. 시집을 잘 갔구나 생각 들어요. (참여자 B)

한국에 와서 너무 좋아요. 한국 오고 싶었어요. (참여자 F)

우리남편 착해요. 남편가족이 착해요. 그래서 한국으로 온 거 후회 안했어요. 진짜요. 맹인이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참여자 E)

본 연구의 참여자의 결혼 후 첫 아이 임신까지의 기간은 6.3개월로 대부분이 결혼이주 1년 이내에 첫 아이를 임신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들의 생식건강에 관한 실태 조사(Kim et al., 2008)에서 보고한 일반적인 특성들과 유사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의사소통의 문제는 결혼 후 한국에서의 삶의 질 전반을 좌우하는 요인이었다. 본 연구에서 첫 주제인 ‘서툰 말로 낯선 나라에서 산다는 것’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문제는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언급되고 있다. Yih (2010)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 언어의 습득은 개인과 사회를 소통시켜 주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내면의 자아가 위축된 자아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Kim, H. S. (2008)은 한국에서의 문화적, 사회적 기대는 여성 이주자에게는 매우 낮선 것이며 가장 직접적인 어려움은 의사소통이며, 가족의 도움 없이는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어떤 것을 할 수도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상태를 말 그대로 ‘생활 장애인이다’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미국이민 한국여성들이 의사소통 장애와 이로 인한 자아 존중감 저하 및 외로움을 가장 큰 문제로 호소하였다고 한 Cho (1994)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현장에서 처치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의 신체를 억제당해도 반항할 수 없었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온전히 전달 할 수 없었던 두려움의 경험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외상적 사건(trumatic life event)으로 간주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환자의 옹호자로서의 간호역할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어야 할 의료 환경이라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주제는 ‘입덧으로 피어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 이들에게 임신은 대개 입국한지 얼마 안 되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임신을 하고 입덧을 겪게 되면서 고국의 음식에 대한 갈망은 무척 큰 갈등요소로 나타났으며 그리움은 고국음식에서 부터 고국과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Kang (2007)에 따르면 동남아 출신 결혼이주자들은 물론 일반적으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인과 문화적인 동질감이 가장 높은 집단이라 여겨지는 조선족 출신의 이주민에게서조차 한국음식은 한국생활 초기 생활 속에서 가장 큰 고향을 치르는 부분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식문화에 대한 어려움을

가능해볼 수 있다. 더구나 입덧이라는 통제 불가능의 상황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고국의 음식,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갈망하게 하였고, 시기적으로 마침 고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기라서 대상자들이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문제에 대한 남편에 배려가 중요한 해결의 열쇠인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람과 친구가 되고 한국사회에 동화되기를 갈망하면서 동시에 한국인에 대해 접근하는데 부담을 느낌을 호소하였다. 또한 외국인인 자신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지 조심스러워 하며 쉽게 다가서지 못함을 표현하였다. Choi 등(2009)은 다문화가정에 대해 여전히 존재하는 편견을 배제하고 문화 간의 이해와 소통을 높이기 위한 문화교육의 차원에서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다문화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주제 3. ‘다가가고 싶은, 그러나 다가가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에서는 다문화 시대를 사는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인에 대해 편견 없이 다가서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족들을 모두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상황적 위기에 결혼과 임신이라는 발달적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으로부터 추출된 주제인 주제 4 ‘이주와 임신으로 힘겨운 이중 스트레스’는 임신에 대한 후회와 아기에 대한 적개심, 심지어는 낙태를 생각하기도 하는 모습으로 극단적으로 표현되었다. Choi 등(2009)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초기 육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상도 없음을 상황악화 요인으로 제시하여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낯선 문화에 대한 적응과 동시에 어머니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어 적응해 나가는 동안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환경과 문화에 따른 적응과 수용의 의미는 다른 선행연구에서 설명하는 복종적인 의미와는 다르다. Yih (2010)의 연구에서는 낯선 문화이기에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자존감 저하, 자국문화에 대한 가치 등이 나타나며, 결혼 초 정체성 혼란기에 ‘복종성’을 보이며 문화사대주의를 바탕으로 낯선 문화에서 살고자 애쓴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제 5. ‘내 문화를 버리고 체념하며 순응하는 임신과 산육의 시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사대주의에 의한 복종보다는 문화수용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 사회문화에 대해 표현하지 않고 한국의 문화를 따르는 이유가 “여기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 Kang (2007)의 연

구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 참여자들도 남편의 뜻에 따라 한국 문화에 순응하는 모습들에게 자신과 자녀가 한국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보 엄마가 되기’의 의미를 추출한 Barclay, Everitt, Rogan, Schmied와 Wyllie (1997)가 밝힌 ‘unready(준비되지 못함)’과 ‘working it out’(해나감)의 주제는 본 연구에서 드러난 주제 6. ‘모르면서 해나가는 엄마 되기’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건강전문가로서 주목해야할 점은 언어적으로 취약하고 지지체계가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임신, 출산 그리고 산육기와 신생아 간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개인적 차원으로 돌리고 있다는데 대한 위험성이다. 국가적으로 공공보건의 차원에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지만 정착 초기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이러한 정보조차도 차단되어 있어 이들에게 거의 무용하다. 보다 폭넓은 홍보 및 정보개방과 체계적인 결혼이주민의 관리, 그리고 자국어나 이중 언어로 된 정보적, 정책적, 사회적 지원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산육 및 초기 신생아 돌보기 시기 동안 지지체계의 정도는 각 가정의 지지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마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수준으로 사는 도시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 7. ‘도움의 손길에 따라 달라지는 산육과 양육의 시간’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 참여자 중에는 출산 후 회복되지 못한 몸으로 혼자서 가사일과 신생아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출산 후 친정부모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몸조리하는 동안 요리를 도맡아 주는 등의 도움을 받고 산육기 및 초기 양육시기를 정서적, 신체적으로 수월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도시에 거주하며 지지자원의 빈약한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 위화감과 건강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생각하는 남편의 존재감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들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Cho, 1994; Kim, H. J., 2008; Kim & Moon, 2011). 그러나 농촌거주 결혼이민자들이 시댁 및 남편과의 갈등을 주된 문제로 호소했던 연구들(Kim et al., 2008; Yih, 2010)과는 다르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직장일로 바쁜 남편 또는 남편의 한국적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서운했던 경험 이외에는 갈등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사회를 향한 디딤돌: 남편’이라는 주제에서 느낄 수 있듯이 남편의 존재는 이들에게 한국 땅에서 기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보호자이며 한국사회를 향한 통로이다. 이는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들

이 지각하는 남편에 의한 사회적 지지가 농촌지역에 비해 높다는 선행연구(Kim, H. J., 2008; Nam & Ahn, 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농촌에 비해 좀 더 나은 경제적 자원을 바탕으로 아내에 대한 배려를 하는 다문화 가정 남편의 새로운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이주자들은 낯선 이국땅에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의미를 자녀에게서 찾고 있다(Yih,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관한 Choi 등(2009)의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도 자녀가 다문화가정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것에 대해 피해의식을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도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자녀가 외국인 엄마를 가졌다는 데서 받게 될 편견과 차별의 가능성을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 '나를 타국에서 살게 하는 의미: 아이'와 '행복을 찾아서 건너온 후 회하지 않을 먼 길'에 반영되고 있다.

결혼 후 한국 사회에 정착을 하여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한국 국적의 자녀를 낳게 되고 그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므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서 출산과 엄마가 된다는 의미는 남다른 것이며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에 있어서 아이는 자신과 남편 또는 한국 사회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하고 결혼을 안정시키는 매우 극적인 경험이다(Kim & Shin, 2008; Yih, 2010).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아이의 존재에 대해 한국사회에 대한 강한 적응 동기이외에도 어머니가 된 개인이 갖는 아이의 의미와 아이에게 잘 해줄 수 있음으로서 행복하다는 개인적 행복의 동기를 표출하였다. 이는 농촌거주 이민자들의 생존과 적응에 대한 치열함 특성과는 차별화되는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임신, 출산, 산욕 및 초기 양육의 경험, 즉 모성경험을 이해하고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9명의 연구 참여자를 심층 분석한 결과,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모성경험은 '타국으로의 이주와 결혼이라는 위기에 적응할 시간적인 여유 없이 임신으로 시작되어 엄마의 역할을 모르면서 해나가는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산후문화에 자신의 문화를 체념하고 남편과 아이를 바라보며 한국으로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만족하는

경험'으로 이해되었다.

그동안 많은 연구가 농촌거주 결혼이주여성을 주목해 온 것에 비해, 다문화 가정의 과반수 이상이 점차 분포되어 있는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들에 집중되지 못한 점이 있었으므로 이들의 임신, 출산, 산욕, 초기 양육 경험을 파악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의 임신 및 산욕기는 매우 다양한 수준의 생활수준이었고 남편의 지지체계도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생활수준이 비교적 동일한 농촌 거주자에 비해 생활수준과 지지체계의 차이가 큰 도시거주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과 지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수행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농촌 지역의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대한 연구와 그 결과를 반영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의 고유의 문화가 이국땅에서 적응해 가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 문화 속에 이주여성의 자국 문화를 조화롭게 통합시킬 수 있도록 다수의 이주민들의 출신국가인 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건강문화에 대한 탐색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Bae, K. E., Lee, K. H., Kim, Y. H., Kim, S., Kim, H. K., & Kim, J. H. (2010). Child-rearing practices and parenting efficacy of marriage-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6, 175-183. <http://dx.doi.org/10.4094/jkachn.2010.16.3.175>
- Barclay, L., Everitt, L., Rogan, F., Schmied, V., & Wyllie, A. (1997). Becoming a mother - an analysis of women's experience of early motherhood.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5, 719-728. <http://dx.doi.org/10.1046/j.1365-2648.1997.t01-1-1997025719.x>
- Cho, Y. S. (1994).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stress and the experiences of pregnant women and postpartum mothers who had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4, 432-447.
- Choi, N. Y., Woo, H. K., Jung, H. S., Park, H. J., & Yi, S. H. (2009). Mothers' parenting stres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 255-268.
- Chung, C. S. (2011). *Pregnancy, delivery and cultural integr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je University, Busan.

- Community Chest of Korea, Committee on Service for Multi-cultural Families. (2009). The study on the adjustment of Korean life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policy direc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Retrieved January 10, 2012, from http://libinfo.chest.or.kr/asp/board/general/CHEST_M0000000502.PDF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ang, I. S., Hwang, N. M., Yoon, M. S., & Park, S. M. (2010). Current status and factors affecting prenatal care by married im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6*, 326-335. <http://dx.doi.org/10.4069/kjwhn.2010.16.4.326>
- Jeong, G. H., Koh, H. J., Kim, K. S., Kim, S. H., Kim, J. H., Park, H. S., et al. (2009). A survey on health management of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ostpartum of immigrant women in a multi-cultural family.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5*, 261-269. <http://dx.doi.org/10.4069/kjwhn.2009.15.4.261>
- Kang, H. J. (2007). *Immigrant women's desire for expressing and preserving the mother culture and their ident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C. H. (2009). *Study of mother's stress caused by rearing and need for support in multi-cultural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Kim, H. J. (2008). A study of spousal support, the demand for health education, and quality of life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4*, 5-11.
- Kim, H. K., & Shin, D. J. (2008). A study on the Filipino marriage and a migrant women's married lif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9*, 519-535.
- Kim, H. S. (2008).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4*, 248-256. <http://dx.doi.org/10.4069/kjwhn.2008.14.4.248>
- Kim, H. R., Hwang, N. M., Jang, I. S., Yoon, K. J., & Kang, B. J. (2008). *The study of reproductive health and policy in foreign immigrant women*. Seoul: Kihasa.
- Kim, K. S., & Moon, S. S. (2011).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 behavior, and marital satisfact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5*, 174-186.
- Kim, M. J., Kim, T. I., & Kwon, Y. J. (2008). A study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contracept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4*, 323-332. <http://dx.doi.org/10.4069/kjwhn.2008.14.4.323>
- KOSIS(2009). *The statistics of popul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Retrieved January 10, 2012, from http://kosis.kr/metadata/main.jsp?surv_id=11779&curYear=2009
- KOSIS(2011). *The statistics of popul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Retrieved January 10, 2012,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251920
- Lim, H. S. (2011). The experience of transition in pregnancy and childbirth among the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7*, 243-255. <http://dx.doi.org/10.4069/kjwhn.2011.17.3.243>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09). *The survey of foreign residents in local government in 2009*. Retrieved January 10, 2012, from <http://news.mopas.go.kr/govnews/branch.do?act=newsView&id=155363832&currPage=145>
- Moon, S. S., Kim, C. H., & Sim, M. G. (2009). Stress, marital satisfaction, and needs for help of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3*, 101-112.
- Nam, I. S., & Ahn, S. H. (2011). Comparison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married immigrant women in urban and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7*, 99-108. <http://dx.doi.org/10.4069/kjwhn.2011.17.2.99>
- O'Hanlon, R. (2005). Mothering the new mother: women's feelings and needs after childbirth. *Journal of Midwifery & Women's Health, 50*, 435-436. <http://dx.doi.org/10.1016/j.jmwh.2005.05.005>
- Seo, H. L., Kim, K. E., & Kim, Y. H. (2008). A study of the factors impacting parenting stress of marri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3*, 121-143.
- Shin, K. R., Ko, M. S., Kong, B. H., Kim, K. S., Kim, M. Y., Kim E. H., et al.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Yang, M. S., & Kim, I. S. (2003). A study on the self-confidence and nursing needs of maternal role performance in primiparas during postpartum period.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7*, 19-32.
- Yih, B. S. (2010). The health-related experiences of foreign wiv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2*, 477-487.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It is known that over 80% of the immigrant women in Korea have a baby within one year after arriving. But they have not had an opportunity for education about mothering and child rearing. In addition, despite of increasing number of immigrant women in urban areas, they are still stereotyped as rural residents.

■ **What this paper adds?**

First, in contrast to the similarities in socioeconomic status in rural areas, mothering experiences of immigrant women in urban are heterogeneous in family support. Second, in this study their lived experiences from pregnancy to new mothering was explored and their words were recorded and analyzed. The results will help nurses become aware of the need for sensitivity in caring for multi-culture families.

■ **Implication for practice, education and /or policy**

The immigrant women in urban areas who do not have family support should be guaranteed minimum support for mothering and child-rearing and should be able to receive culturally appropriate care.